

3일 Market Index	
코스피 8088.34 (+440.25)	코스닥 868.41 (+1.69)
금리 (연고채 3년) 3.748 (+0.001)	환율 (원/달러) 1530.00 (-25.80)

metro 경제

신동빈 롯데 회장
바이오 생산시설 찾아
"새 도약 핵심 산업"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7월 6일 월요일

m-커버스토리

영남·충청·서남권 등에 5000조 투자 지역 선순환... 韓 산업지형 바꾼다

메가프로젝트 득과 실

산업계, 건설·플랜트 등
연관산업 전반 투자효과
인프라·전문인력 확보 등
차질엔 '기업 부담' 작용

정부와 국내 주요 대기업이
영남·충청·서남권 등 지방 권역
에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인 약
5000조원의 투자를 약속하며 대
한국 산업지형에 대대적인 변
화를 예고하고 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AIDC)를
축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주
도하는 대규모 권역별 투자는
향후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체
질 개선과 신성장 동력 확보, 지
역 균형 발전이라는 초강력 선
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
망된다. 다만 이같은 역대급 투
자에도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없지 않다. <관련기사 3면>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



광주 북구 첨단3지구에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한창이다. 첨단3지구는 두
기업의 반도체 생산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뉴스시스

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
젝트 국민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광주(서남권, 6월 30일)·아
산(충청권, 7월 2일)·진주(영남
권, 7월 3일)를 순회하며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권역별 국민보
고회'를 잇달아 열었다. 국내 대
표 기업들은 각 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제조 기반을 극대화한
맞춤형 초대형 투자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산업계는 대규모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

이터센터, 전력망, 첨단 산업단
지 조성이 본격화될 경우 건설,
플랜트, 전력기기, 반도체 장비
와 소재,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투자 효
과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AI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 데이터센터 구축
과 클라우드, 서버, 네트워크 장
비, 냉각설비 등 관련 시장도 함
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의 지속성 역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국
가 프로젝트가 중장기적으로 안
정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업들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보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할 수 있
다. 지방 첨단산업단지 조성
과 기업 투자 지원 확대는 지역경
제 활성화와 신규 고용 창출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첨단
제조업과 AI 인프라 투자는 투
자금역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대규모 고용 창출을 이끌 것으
로 전망된다. 실제 제3판교테크
노벨리의 경우 1조7000억원 투
자로 1만1413명의 고용유발과 1
조768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는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메가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된다
면 경제 선순환 효과는 예상보
다를 전망이다.

반면 이번 메가프로젝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
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변수는 투
자 계획의 실행력이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레버리지 '충격'... LP관리 손본다

금융당국, 투자 안정화 방안
LP평가기준 상향하거나
사고 운용사 패널티 등 거론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괴리율 확
대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
해 유동성공급자(LP) 관리 강화
에 나선다. 상품 출시 한 달여 만
에 정치권까지 합세해 증시 변동
성 확대 논란이 커지자 당국은 각
종 제도 보완책을 강구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다만 일
각에서는 현재 증시 변동성 확대
가 오로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탓
이라는 단선적 분석과 선부른 제
도 변경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
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삼성전자·SK하이닉
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괴리율
안정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 코스피 변동성 확대를 투
자기회로 여긴 개인 투자자의 수
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괴리율 확
대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
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초 발생
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S
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괴

리율 확대 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당국은 괴리율 확대 사고를 시스
템상 문제보다 인재의 성격으로 보
고 있다. 한 당국 관계자는 "괴리율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LP
들이 종가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이
상 현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생
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거래소가 분기
별로 하는 LP 평가의 기준을 상향
하거나, 괴리율 사고가 발생한 자
산운용사는 차기 상품의 신규 상
장 심사 때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
이 거론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단
일종목 레버리지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면 기초자산 종류를 삼성
전자·SK하이닉스 2개에서 더 늘
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삼성전자·현대차
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
버리지 상품 상장이 검토 중이라
는 증권가 소식도 이런 주장에 힘
을 실었다. 하지만 당국은 삼성전
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
지의 시장 영향도 불분명한 상황
에서 기초자산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은 염두에 두지
않은 걸로 전해진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외환시장 24시간 무중단 거래체제 스타트

정부, 접근성·투명성 향상 일환
역외 NDF 원화헤지 수요 일부
국내 현물시장으로 유도 효과

원·달러 현물환시장이 6일부터
주중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한
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이뤄지던 원화 헤지 수
요 일부를 국내 시장으로 유도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
다. 다만 원화가 17년 만의 저점
부근에 머무는 가운데 심야 유동
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적은 주문
에도 환율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
에 따르면 정부는 6일부터 원·달
러 현물환시장의 거래 공백을 없
애 주중 24시간 운영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범 거래를 진행했고,
기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였던
거래시간을 새벽과 아침까지 확대



Chat GPT가 생성한 원·달러 24시간 거래 이미지.

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거래시간
연장을 넘어 외국 금융기관의 원
화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거래를
국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일환이
다. 등록외국기관 등 해외 금융
기관이 시간 제약 없이 국내 현
물환시장에 참여하면 해외 투자
자도 이들을 통해 원화 환전과
환헤지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꼬리가 몸통 흔드는 구조' 손본다

정책의 핵심은 역외 NDF 시장
에서 이뤄지던 원화 헤지 수요 일
부를 국내 현물환시장으로 유도하
는 데 있다. NDF는 실제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계약환율과 만기환
율의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파
생상품이다. 국내 외환시장이 단
한 시간에도 원화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 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
들이 주로 활용해왔다.

문제는 국내 시장이 닫힌 야간
에 형성된 NDF 가격이 헤지 거래
를 거쳐 국내 현물환시장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 충
격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작은 역
외시장이 국내 원화 가격을 좌우
하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
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신 총
재도 지난 5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에서 야간 NDF 거래가 헤지를 거
쳐 국내 현물환과 선물환시장에
파급되는 경로를 지적했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달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역외 NDF 거래를
통한 쏠림이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NDF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거래
를 국내 인도가능선물환(DF) 시장
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
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
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
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
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 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미국 독립 250주년 축하...한미동맹
더 굳건히 이어갈 것" /사진 뉴스시스
▲韓정부, 하메네이 장례식 참석 취소...이란 정
부, 외교단은 초청대상 제외

▲김용범 "AI생산혁명 시대 국가가 생산플랫폼...
초과이윤은 다음세대 투자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與 선관위 특검법 이
반주 제출

▲복지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방 주민에 에어
컨·선풍기 공급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콜센터' 출범 한 달 신
고 6배로